

‘파면’의 순간 함께 합시다

4일 광주·전남 곳곳서 시국대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선고 당일 현재의 판결을 함께 지켜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겠다는 각오다.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오는 4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생중계 되는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시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선고 이후 오후 7시부터 가칭 ‘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그동안 지역민들의 활동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조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대개혁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인용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광주비상행동 측은 선고 뒤 투쟁 결의대회를 이어가면서 5일 오후 5시 21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광주비상행동은 1일에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즉각 파면을 촉구한 뒤 서울로 상경, 헌법재판소

비상행동 5·18민주광장 생중계 시청…선고 이후 ‘승리 보고대회’

목포·여수·완도 등서도…시·도 교육청, 학교에 생중계 시청 권고

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1박 2일 철야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전남에서도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TV 생방송을 함께 시청하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지켜보려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여수에서도 시민비상행동을 중심으로 4일 오전 11시 흥국체육관 앞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생방송으로 시청하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민비상행동도 같은 시각 목포 평화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오후 5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승리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장성역광장, 완도 장보고마트 앞,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 앞 등 12·3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열어왔던 전남 곳곳에서도 4일 선고에 맞춰 집회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도 생중계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지켜본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1일 일선 초·중·고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하는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적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남교육청은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일 생중계 시청 여부를 일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문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민주총총 광주지부는 1일부터 선고일 전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 매일 저녁 5·18광장에서 시민총결기대회를 진행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일본 노역 주의보 전국에 일본노역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일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반원들이 임동 가야캠퍼스필드 앞 서방천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경찰에 희생 유족 정신적손배 승소 “6857만원 지급”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손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한중환 부장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6857여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영광군 영광면 와룡리에서 산지기를 하던 A씨는 1950년 6월 20일 빨치산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광경찰서로 불려갔다가 한봉제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A씨 유족은 뒤늦게 A씨가 희생된 장소에 갔으

나 시신이 부패해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진상규명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4월 30일 A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A씨 유족들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지난해 8월)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24년 여름 가장 더웠다 전남 벼멸구 피해도 최대

평균 기온 26.5도·열대야 20.2일…비도 많이 내려

기상청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지난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73년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가장 더웠다. 특히 가을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벼멸구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발생·분야별 피해 현황, 향후 대책 등이 담겼다.

우선,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6.5도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평년(23.7도)보다도 1.9도 높은 것으로,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또 9월까지 여름철 더위가 이어지며 9월 평균 기온도 24.7도로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는 6.0일, 열대야일수는 4.3일로 이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 2818명 대비 31.4%가 증가했다.

가을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과 고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컸다. 전국적으로 3477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는데, 벼멸구 생육기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1만 7732ha가 피해를 입었다. 전남은 무려 9261ha에 걸쳐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바다의 온도 역시 뜨거워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17.8도로 최근 10년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상고수는 현상 발생일은 182.1일로 10년 평균 50.4일의 3.6배에 달했다.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도 2022년 17억원, 2023년 438억원, 2024년 143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더위 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내렸다.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철에 474.8mm로 역대 11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여름철 강수 중 78.8%가 장마철에 내려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비가 집중해 내렸다.

특히 지난 장마철 강수는 좁은 영역에서 강하게 내렸는데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사례도 전국적으로 9개 지점에서 관측됐다. 진도군 의신면이 7월 16일에 1시간 최대 강수량이 103.5mm로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를 보면 광주·전남 지역 중 월 극값 1위를 차지한 곳이 4곳이었다.

순천은 9월 20일 일강수량이 200.8mm, 보성은 2월 18일 일강수량이 109.9mm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목포는 9월 16일 일 최저기온 27.4도, 여수는 9월 18일 일 최저기온 27.8도로 월 극값을 경신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도, 전남을 빛낼 ‘으뜸인재’ 모집

25일까지 신청…131명에 연간 300만~6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전남을 빛낼 ‘으뜸인재’를 모집한다.

선발된 으뜸인재 131명에게는 연간 300만~600만 원의 재능계발비가 지원된다.

으뜸인재 선발대회는 지역 발전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전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481명을 선발, 지원했다.

전남도가 선발하고 지원한 으뜸인재들은 국가 대표로 선발되거나 전국대회 입상, 논문 발표, 서적 출간,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으뜸인재 선발 분야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마이스터 ▲국악·실용음악 ▲클래식 ▲미술 ▲무용·연기·영상 ▲체육 등이다.

모집 대상은 14~24세로, 중·고등학생은 전남 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의 경우 전남도내 대학 재학생이거나 전남에서 초·중·고교 중 한 곳을 졸업하고 타 시·도 대학에 진학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으뜸인재 선발 심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로 기본역량, 전문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2차로 실기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도는 6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제6회 으뜸인재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마음껏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 **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대학원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